

사설 사암간 공식 소통 창구 '대동회' 출범

대구·경북 사설사암연합회 연합단체

대구·경북 조계종 사설 사암을 중심으로 한 연합단체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사설 사암 주지사님 45명은 '대동회'를 결성하고 4월 12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 본관5층 플라자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동회(大洞會)에는 원로의원 지성 스님과 전 쌍계사 주지 철형 스님, 그리고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등 지역의 주요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으며 경북 칠곡 삼보사 주지 정해 스님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정해 스님은 "말사 주지 스님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입장을 하거나 번고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챙기지 못하니 그동안 서운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우선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제3세계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

색중"이라고 설명한다.

회원발전과 수행·정진 그리고 불교발전을 위해 창립한 조계종 대동회는 앞으로 지역승가대학과 선원에 장학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교계 신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펼친다.

각 사업을 실행해보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사업 및 각종 위문활동 △제9교구 승가대학과 선원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 △교계 신원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 사업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범교 행사 개최 △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 등을 펼친다.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사설 사암 주지사님 45명은 '대동회'를 결성하고 4월 12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 본관5층 플라자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정해 스님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구 본사와 사설 사암간에 소통의 공식적인 채널 창구가 없었다. 대동회는 대화의 장구 역할을 하고 지역 불교와 교단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앞으로 총림의 크나큰 발전에 매진해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스님은 "상생 화합은 물론 교구본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정진·수행의 가풍을 잇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장불교 발전에 최선 다할 터"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

기장지역 사찰 신도연합조직인 기장군 불교연합신도회가 창립법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 17일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기장군 불교연합신도회 초대회장 이재순(장안사) 씨,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범어사신도회장 이윤희씨, 오규석 기장군수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에 취임한 이재순씨는 "창립 초대회장으로서 부처님의 불법과 자비광명을 널리 알리고, 기장군민과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신도회를 만들어 기장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불교의 단결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 기장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 및 회장 취임식 모습.

역을 대표하는 신도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함께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신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3월13일 해광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 21일 청량사에서 2차 신도대표간담회, 3월 27일 장안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발족하고 정관을 개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통도사는 4월14~16일 보살계산림법회를 열었다.

통도사 보살계산림법회 원만회향

4월 14일~16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는 4월 14일~16일까지 3일간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고 보살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보살계산림법회를 개최했다. 3일간 통도사 설법전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4월16일 설법전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

법회에서 전계 아사리 종산 해남대화상, 갈마 아사리 법산경일 대화상, 교수 아사리 우설 덕문 대화상, 존종 아사리 송현성림, 보탑 천진, 무애, 인산 지준, 고법 중선, 해암 우진, 현진 지형 스님이 삼사찰중사로 법석에 올라 계를 내렸으며, 보살계 수계법회에는 30년째 빠짐없이 참석한 김명옥씨 외 5,000여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계했다.

이날 회향법회는 개식, 예경삼보, 거향찬, 삼사찰중사 등단, 법사스님 삼배예, 수계, 연비 및 탑돌이, 회향계, 폐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통도사는 자정율사의 창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학 양성 장학금으로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12명, 학사23명, 승가대학원 및 학림 11명, 본사 승가대학 4명으로 총 58명의 스님에게 5,34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대선불교조계종 종정·부종정 이취임식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제2대 종정·부종정식이 4월 12일 오전 대구 프린스호텔 본관2층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 해광사 주지 덕진당 진일 대종사 스님이 제2대 종정으로, 적연당 운암 대종사가 부종정으로 추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종단협의회 종정 스님들과 대선불교 조계종 종도,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승려사이이고 승려 화백' 이신 진일 종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초대 종정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심신을 받쳐 종도 화합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종도 여러분에게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축원올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경관 해치는 가설 덧집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그 문화재로 인해서 사적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과 같은 곱쓸 일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문화재는 야기 보살피듯 보살피어야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문화재를 원형대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거나 해체·수리하

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존처리하거나 해체·수리할 경우에는 가설 덧집을 씌우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재들이 햇빛이나 눈비나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찰에 오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리하는 문화재의 결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덧집을 씌우고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문화재를 해체·수리하는 경우에는 덧집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찰의 중심일 관에 위치할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대상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고 철거하기는 하지만 가설 덧집이 사찰경관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가설 덧집의 재료나 디자인도 심의를 받아서 설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문화재를 해체·수리하더라도 이 가설 덧집 때문에 사찰의 경관이 지극히 나빠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기설기 철제 파이프 같은 것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철판을 씌워서 만드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가설 덧집은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념무상으로 작업에 몰두하기 어렵고 사찰에 오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영구적인 것은 잘 만들어야하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허술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사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여법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가설 덧집이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경남 ㅊ사찰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안 (먹물 밀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화)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실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연포, 순금 99%(평금), 안료, 기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X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조왕탱화 상세안내

- ① 정의 : 부역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 ②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 ③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 ⑤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 ⑥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 ⑦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